

한국에는 ‘대보름’이라는 축제가 있다.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설날, 추석과 함께 한국의 연중행사 중의 하나다.

대보름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다. 좀더 자세히 써 보겠다. 먼저 ‘강강수월래’란 것이 있다.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여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빙글빙글 돈다. 남자는 하지않는 게 특이하다. 아마도 한국민족은 음악적인 놀이를 즐기는데 틀림없다. 강강수월래를 생각하는 것 만으로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게 만든다. 다음은 대보름의 먹는 것에 대해 써 보겠다.

대보름에는 주로 건강을 바라는 의미로 먹는 것이 매우 많다.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곡밥이 있다. 쌀, 콩, 대추, 밤 등을 섞어 지은 밥으로 풍작과 함께 그 해를 건강하게 산다는 기원을 담고 있는 것 같다. 또 ‘귀를 잘 들리게하는 술’이 있다. 한국어로는 ‘귀밝이술’이라 한다. 먹는 술은 정중으로 대보름 아침일찍 가족모두 일어나 정중 한잔씩을 마신다. 그렇게 하면 귀가 좋아진다고 믿고 있다. 또 나쁜것에 관해서는 듣지 않고 좋은 것만 들으라는 의미도 있다.

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온다. 대보름 전날 자버리면 눈썹과 속눈썹이 하얗게 되버린다는 얘기다. 어째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것이다. 내가 보기에 아이들을 자지 않게 하려고 어른들이 얘기를 만들어 그것이 전해오는 것 같다. 이상이 내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축제인 대보름이다.

사실 나도 확신이 부족하므로 틀린 점이 있을지 어쩔지 걱정이다.